

# 나의 삶과 꿈

불어불문학과 201421639

조유라

## 목록

### 1. 과거의 삶

- 1.1. 역경과 고난을 중심으로
- 1.2. 이상향과 적극성을 중심으로

### 2. 현재의 삶

### 3. 미래의 꿈 : job, plan, attitude

- 3.1. 돈끼호테의 인생에서 : 자유, 주체의식
- 3.2. 오뒷세우스의 인생에서 : 끈기와 의지, 정의(justice)
- 3.3. 마담 보바리의 인생에서 : 사랑, 용기

## 1. 과거의 삶

### 1.1. 고난, 역경을 중심으로

과거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특별하게 기억에 남고 나를 한층 더 성장시킨 경험은 무엇이였을까? 이 물음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이 있겠지만, 그것들 중에서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경험은 고난과 역경의 경험들일 것이다. 비록 21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경험들이지만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의미 있는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그녀는 아들을 갖고 싶었다. 튼튼한 갈색 머리의 애였으면 했다. 이름은 조르주라고 지으리라. 이렇게 사내아이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니 마치 과거의 모든 무력감에 대하여 희망으로 양갈음하는 느낌이였다. 남자로 태어나면 적어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온갖 정념의 세계, 온갖 나라를 두루 경험할 수 있고 장애를 돌파하고 아무리 먼 행복이라 해도 붙잡을 수가 있다. 그러나 여자는 끊임없이 금지와 마주친다, 무기력한 동시에 유순한 여자는 육체적으로 약하고 법률의 속박에 묶여 있다. 여자의 의지는 모자에 달린 베일 같아서 끈에 매여 있으면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펄럭거린다. 여자는 언제나 어떤 욕망에 이끌리지만 어떤 체면에 발목이 잡혀 있다.<sup>1)</sup>

이 구절은 '마담 보바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이는 보바리 부인이 '남아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보바리 부인이 살았던 시대가 '남아 중심주의'의 사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을 인용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나' 또한 남아 중심주의가 낳은 피해자라는 것이다. 나의 친 조부모님은 3남매 중 유일한 아들인 아버지의 내외가 아

1) 퀴스타브 플로베르, 김화영역, 「마담 보바리」, 민음사, 2000, p.131-132.

들을 낳기를 몹시 원했었고, 결과적으로 나는 그들의 바람과 달리 딸로 태어났다. 물론 내가 여자아이로 태어났다고 해서 나를 구박하거나 싫어하진 않으셨지만, 언니와는 다르게, 그들과 나 사이에 느껴지는 거리감이 나를 소극적인 아이로 만들었다.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것은 내가 어린 시절 가졌던 가장 큰 상처였고 어머니가 나에게 더 신경을 써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지금 생각해도 서운하고 속상한 기억이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 보다 눈치가 조금 더 빠른 것은 이 때의 경험이 나의 성격형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인상에서 가장 큰 압박감을 준 고난과 역경의 경험은 '재수(再修)'를 준비한 지난 1년간의 경험일 것이다.

열다섯 살 때 엠마는 여섯 달 동안 낡은 도서 대여점의 책 먼지로 손을 더럽혔다. 그 후, 월터 스콧을 읽고는 역사물에 열중하여 궤짝, 위병 대기소, 음유 시인 따위를 동경했다. 그녀는 해묵은 장원에서 긴 드레스를 입은 성주마님처럼 살아보고 싶었다.<sup>2)</sup>

보바리 부인은 상류 사회를 동경한다. 나 또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상류대학, 즉 명문 대학을 동경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명문대의 입학은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나도 그들 중 한명으로서 선명하고 생생하게, 어쩌면 조금은 분에 넘칠지라도 그렇게 명문대학으로의 입학을 꿈꾸었다. 그러나 한 번의 실패, 다른 사람들은 한 번에 해낸 일 또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해내지 못 했다. 매일 '괜찮다. 괜찮다' 했지만 정말로 내가 괜찮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자꾸만 약해지려는 마음을 부여잡으려 애쓰던, 그런 나날들이었다.

이 시기를 고난과 역경이라고 표현할 만큼 '나' 자신에게 있어서 암흑기일 수도 있지만 돈끼호떼가 상대방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도 다음 상대방을 만나면 다시 전투에 임했듯이 '실패'라는 단어의 의미를 '끝'이 아닌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라고 받아드리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서 더욱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되고 있으며, 겸손함이 라는 가치를 배우고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 1.2. 적극성, 이상추구를 중심으로

유년기의 경험과 학창시절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과거의 하루하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나는 매우 열정적인 아이였다.

항상 최고는 아니었지만 늘 최선을 다했었다. 지금에 와서 과거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일 수 있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면, 과거의 내가 높은 이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태도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꿈이 많은 아이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고생시키는 일쯤은 마다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항상 높은 꿈과 이상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하거나 또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의 상실감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그러한 이상향들이 동기부여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던 과거의 나는 매우 행복한 아이였다.

2) 퀴스타브 플로베르, 김화영역, 「마담 보바리」, 민음사, 2000, p.59.

올리브 나무 말뚝이 아직 푸른데도 금세 불이 붙기 시작하여 무섭게 달아오른 것 같이 보였을 때 나는 다가가 그것을 불에서 꺼냈고 주위에는 전우들이 둘러섰고, 어떤 신께서 우리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소. 그리하여 전우들은 끝이 뻘죽한 올리브나무 말뚝을 움켜잡고 그자의 눈에 다 밀어 넣었소. 한편 나는 말뚝 위에 매달려 말뚝을 돌렸소. (중략) 한편 나는 전우들과 나 자신을 위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을 찾으려면 어찌하면 좋을지 궁리하고 있었소.<sup>3)</sup>

또한 오뒷세우스처럼 나는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학년의 반장, 걸스카우트의 총 반장, 동아리의 기장등을 맡았던 과거의 나의 행적을 통해 드러나는데, 어떤 단체의 리더가 되는 것은 나에게 있어 매우 매력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때문에 단체의 '대표'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높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단체에 대한 커다란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리더가 되고 나서 내가 느껴야 하는 책임감에 항상 부담스러워 했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그 부담감을 즐겼던 것 같기도 하다. 현재도 책임감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고, 누군가를 배려함에 있어서는 나 스스로가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렸을 적의 이러한 활동들이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현재의 삶

언제까지가 현재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현재를 '대학 입학 후 ~ 지금 이 순간'이라고 정의하겠다.

'과거의 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아예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은 항상 나에게 낯설었다. 14살, 중학교를 입학 했을 때도 그러했고 17살, 고등학교로 진학했을 때에도 그러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무엇도 아닌 나의 성격에서 오는 것이었다.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지만 한편으로는 거리감을 두었고, 현재보다는 과거에 더 가치를 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환경과 상황은 나에게 있어 어색함이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한 '현재의 나'는 그렇지 않다. 누구보다도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과거의 단점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을 노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지 않은 거리감은 두지 않으려고 한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과거의 내가 나타나 나를 피곤하게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과거보다 좀 더 성숙해진 나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더 나은 나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과거의 나는 항상 후회하는 사람이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현재와 미래보다는 과거에 의미를 두는 편이였고, 그렇게 때문에 과거에 대한 후회는 늘 나를 따라다녔다. 지나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였지만, 과거의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지난날의 '현재의 나'는 불행했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언제나 환상과 망상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갈망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로 열려 있다기보다 추억의 양상을 보인다. 책에서 보았던 세상이 막연한 그리움의 대상이 되면서 앎은 마치 한번도 현실에서 체험해 보지 못한 것을 평생 추억하며 사는 인물처럼 보이게 된다. 그녀의 꿈은 책과 공상 속에 머물러 있을 뿐 비상하지 못 한다.<sup>4)</sup>

3) 호메로스, 천병희역, 「오뒷세이아」, 숲, 2006, p.206-208.

과거의 나의 태도는 현재보다는 과거에 더 집착하고 현재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더 나은 미래만을 꿈꾸었다는 점에서 보바리 부인의 태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과거와 헛된 희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향하게 했던 보바리 부인과는 다르게, 지금의 나는 현재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리고 실현가능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에 생각한 미래의 나는 억만장자와 같은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던 신데렐라처럼 될 수 있었으며, 대통령과 같은 나라에서 제일 지위가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이제 과거처럼 마냥 자유롭게 상상할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슬픈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현 가능한 미래를 상상하고 직시하며, 그 미래로 향하고 있는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 보다 희망이 더 가득한 상태고, 그 미래를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나는 예전처럼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드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대학생'으로 학생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예전의 나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어른'들의 이야기만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던 반면 지금의 '나'는 내가 어른이 되어 스스로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 결정하기' 이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내가 선택한 일은 '계획적으로 살기'인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나는 대학을 입학한 후에 각종 계획서(planer)를 만들어서 기록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를 실천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고, 매우 애를 써야 가능한 일이지만, 현재의 나는 나의 삶을 좀 더 계획적이고 규칙적으로 만들고 있다.

### 3. 미래의 꿈 : job, plan, attitude

#### 3.1. 돈끼호떼의 인생에서 : 자유, 주체의식.

'돈끼호떼'라는 인물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상과 그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무엇일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는 '자유'라고 생각한다. 비록 돈끼호떼는 '정신나간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자신이 원하는 이상을 향하여 자유롭게 모험을 떠나는 인물이다. 대책 없고 무모한 모험이지만 그의 모험에서 나는 미래에 자유롭게 이곳저곳으로 '배낭여행'을 떠나는 나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었다.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 돈끼호떼처럼 나는 모험, 즉 배낭여행을 떠나고 싶다. 이 배낭여행은 나에게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할 것이며,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성장한 내가 되게 할 것이다.

어쩌면 돈끼호떼처럼 모험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가진 이상이 허황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라도, 나는 이 여정을 통해 더 나아진 내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는 국내, 그리고 국외로 배낭여행을 떠나고 싶다.

---

4) 박미경, 「'마담 보바리'에 나타난 현실과 꿈의 상호 파괴성」,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43 집, 2003, p255.

청춘이란 늘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어야 하오. 꿈꾸는 자와 꿈꾸지 않는 자, 도대체 누가 미친 거요? 장차 이를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는 내가 미친 거요? 아니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사람이 미친 거요?<sup>5)</sup>

돈끼호떼를 읽은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돈끼호떼는 허황된 이상만을 쫓는 미치광이일까?'일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수업을 받으면서 들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나 스스로에게 수 없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다.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자면, 그는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를 미치광이로 봐야한다면 그 원인을 그의 행동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의 행동은 '주체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미치광이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돈끼호떼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지향점 또한 '용감한 기사'로 분명하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부끄럽지만 지금까지의 나는 나의 삶에 주인이 아니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다. 나는 이러한 태도에 분명하게 변화를 주고 싶다. 나의 모든 행동에 주체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빠른 시일 안에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바로 당장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만들어 가는 미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내가 주인이 되었으면 한다.

### 3.2. 오뒷세우스의 인생에서 : 끈기와 의지, 정의(justice)

여신들 중에서도 고귀한 칼립소는 그와 대면하자마자 금세 그를 알아보았다. 불사신들은 설혹 누가 멀리 떨어진 집에서 산다 해도 서로 못 알아보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이 너그러운 오뒷세우스는 동굴 안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바닷가에 앉아 울면서 눈물과 신음과 슬픔으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으니 그는 전부터 늘 눈물을 흘리며 추수할 수 없는 바다를 바라다보곤 했던 것이다.<sup>6)</sup>

내가 장래에 가지고 싶은 직업은 '언어'와 관련된 직업이다. 그것은 국제경찰이 될 수도 있고 국제 변호사가 될 수도 있으며 또는 공항에서 일하는 직업일 수도 있다. 내 적성에 맞고 잘하는 것이 무언인지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하여 한가지의 일로 도출해 내지 못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위와 같이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많은 끈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다.

오뒷세우스는 자신의 고향으로 귀향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들을 겪고 많은 유혹을 받는다. 그는 '신적인 인간'으로 충분히 강인하기 때문에 그를 찾아온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은 크게 놀랍지 않다. 그러나 그를 유혹하는 것들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가 그것들을 이겨내는 모습은 가히 놀랍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따라서 내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동의 양식은 '끈기와 의지'라고 생각한다. 본격적으로 언어를 공부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나는 끊임없이 외부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와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한다. 언어는 매일 꾸준히 해야 성장하는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끈기와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나의 모국어처럼

5) 세르반테스, 민용태역, 「돈끼호떼」, 창비, 2005, p.148.

6) 호메로스, 천병희역, 「오뒷세이아」, 숲, 2006, p.120.

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반드시 언어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나의 '버킷리스트'에 항상 존재했던 것은 해외로 가서 하는 '봉사 활동'이다.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나라로 가서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나는 오뒷세우스가 꽤나 정의로운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오뒷세우스가 고향에 돌아와서 자신의 부인에게 청혼을 한 인물들, 즉 자신의 부인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를 괴롭힌 구혼자들을 처단하는 장면을 통해 들 수 있다. 타인이 봤을 때 오뒷세우스의 행동이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행동에서 '정의'라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정의'라는 요소에 관심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인간이 해야만 하는 올바른 것, 즉 정의로운 행동 중에 봉사활동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고 싶은 봉사는 일차원적인 단순한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며, 지식 또한 있어야 한다. 후에, 나이가 들어 자식들을 독립시킬 나이가 되면, 나는 해외로 나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학교를 세우고 교육도 시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스스로에게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 3.3. 마담 보바리의 인생에서 : 사랑, 용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21세기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덜 자유롭고 금지와 속박이 더 많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금지와 속박이 더 많은 만큼 '다른 곳'을 향한 욕망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기에 엠마의 비극은 세월을 뛰어넘어 현대의 여성에게도 생생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sup>7)</sup>

나의 미래를 말할 때, '마담 보바리'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요소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열정과 사회가 요구하는 관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이다.

보바리 부인의 사랑은 지나치게 쾌락을 중시하고 수동적이다. 보바리 부인의 쾌락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쾌락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쾌락에 대한 욕망을 알아주기를 원했고, 충족시켜주기를 기대했다. 자신의 욕망에 대한 완전한 충족을 기대하며 상대방에게 자기 삶의 모든 의미를 부여했던 탓에, 그것이 불완전한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죽음을 맞이한다. 그녀의 사랑은 위태로운 모래성과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한편으로는 순수하다. 비록 올바른 방식의 사랑은 아니었지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보바리 부인처럼 열정적으로, 그리고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보바리 부인처럼 바람, 외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방과 수 없이 성적으로 관계를 가진 보바리 부인에게서 '순수함'을 찾는다는 것이 모순인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물질적이고 계산적인 관계가 아닌, 단지 낭만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관계를 원했던 보바리 부인의 사랑은 순수한 것이다.

나 또한 살면서 그녀처럼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해보고 싶다. 내가 살고 있는 또는 살게 될 미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로 인하여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경써야 할 요소들이 많아지고 나의 집중을 빼앗아 가는 것들

7) 진인혜, 플로베르의 '마담보바리 : 다른곳을 향한 욕망과 아프로디시아, 배제대학교, 2011, P.20



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내 마음을 다하고, 한사람을 위해 내 온 신경을 집중해보고 싶다. 만약 내가 보바리 부인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커다란 축복일 것이다.

외도와 사치, 그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굳이 그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녀는 과연 부정적이기만 한 인물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나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녀로부터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살았던 사회가 요구하는 관습에 반하는 것들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그녀를 평가하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지만 나는 그녀의 행동을 '용기'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에게 '정절'만을 이야기하며 사회에 순응할 것을 요구했던 시대에서 보바리 부인은 그에 순응하지 않았으며, 이것을 현대사회의 시각에서 해석하면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모두가 '예(Yes)'라고 할 때 '아니요(No)'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 것이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유별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하여 또는 윗사람들에게 찍히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하는 행동이 부정(不正)하다는 것을 앞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취하는 의견, 행동을 따라가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 물론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닌'것을 '맞다'라고 해야 하는 그런 유연함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적어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의 뜻을 굽히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들에게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 나는 그녀의 용기를 닮고 싶다.

## 참고문헌

### <단행본>

귀스타브 플로베르, 김화영역, 「마담 보바리」, 민음사, 2000.  
세르반테스, 민용태역, 「돈키호테1」, 창비, 2005.  
세르반테스, 민용태역, 「돈키호테2」, 창비, 2005.  
호메로스, 천병희역, 「오뒷세이아」, 숲, 2006.

### <논문>

박미경, 「'마담 보바리'에 나타난 현실과 꿈의 상호 파괴성」,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43 집, 2003.  
진인혜, 플로베르의 '마담보바리 : 다른곳을 향한 욕망과 아프로디지아, 배제대학교, 2011.

### <참고사이트>

[http://www.gjdream.com/v2/week/view.html?news\\_type=404&mode=view&uid=452744](http://www.gjdream.com/v2/week/view.html?news_type=404&mode=view&uid=452744)

명작에게 길을 묻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꿈꾸는 모두가 돈키호테, 박선주, 2014-02-03